

북한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새 세대’ 문화¹⁾

조정아(통일연구원)

1. 들어가며

90년대 중반의 경제난과 그 이후에 전개된 시장화가 북한 여성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난 시기 가부장을 대신하여 생존을 위한 활동에 나섰던 여성의 역할은 시장화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더욱 커졌고, 젠더관계와 의식의 변화도 뒤따랐다. 여성들의 삶의 변화는 직장생활, 시장활동 등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가족, 이성관계, 섹슈얼리티와 같은 사적인 영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30대 젊은 여성들의 삶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섹슈얼리티 영역일 것이다. 섹슈얼리티는 광범위한 의미로 “성역할, 성행위, 성적 감수성, 성적지향, 성적 환상과 정체성을 정의하고 생산하는 모든 영역”²⁾을 의미한다. 섹슈얼리티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권력의 장 안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이기³⁾ 때문에 사회적 환경과 젠더정치의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최근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여성들의 섹슈얼리티 영역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연애와 결혼 양상, 성적 실천의 변화 등 최근 북한의 젊은 여성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섹슈얼리티의 변화 양상을 젊은 세대의 문화와 연결시켜 살펴본다. 이 글은 북한에서 태어나 생활하다가 최근에 탈북한 여성 22명을 대상으로 연구진이 2019년에 진행한 생애사 심층면접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이 중 17명이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 사이에 출생한 20대-30대 중반의 연령대이다.⁴⁾

2. ‘낭만적 사랑’ 과 친밀성의 장소들

가. 사랑노래, 사랑영화와 ‘낭만적 사랑’

최근 북한의 젊은 세대들 속에서는 자유연애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탈북 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청년남녀들의 자유연애는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현재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1) 이 글은 조정아·이지순·이희영,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서울: 통일연구원, 2019)의 IV장 4절을 정리·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2)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페미니즘의 개념들』 (파주: 동녘, 2015), p. 162.

3) 앤소니 기든스 저, 황정미·배은경 역,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서울: 새물결, 1996), p. 57.

4) 필자는 이 연령집단을 북한의 ‘새로운 세대’라 명명한 바 있다.(조정아·조영주·조은희·최은영·홍민,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3))

북한의 공식담론에서 진정한 사랑은 ‘혁명적 동지애’로 그려져왔다. 북한 소설에 나타난 청년 남녀의 사랑에서는 동지애적 관계와 공공윤리적 신념의 확인이 감정교류에 우선한다.⁵⁾ 그런데 북한의 젊은 여성들이 들려주는 연애담은 ‘혁명적 동지애’에 기초한 동지애적 사랑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 세대의 이야기와도 다르다. 이들 20대 여성들의 연애담에서는 기든스(A. Giddens)가 ‘낭만적 사랑’이라 명명한 사랑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⁶⁾

평양에 거주했던 한 20대 여성은 평양에서 가장 좋아했던 장소를 묻자 엉뚱하게도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연구자: 평양에서 본인이 제일 좋아했던 장소는?

구술자: 네, 집이에요. 집에서 나는 누구처럼 그 드라마랑 보고, 한 번 여유롭게 뭐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연구자: 드라마라는 건 남한 드라마요?

구술자: 네, 그러니까 뭐 무슨 “태양의 후예”나 “공동경비구역” 이런 거 말고, 그냥 사랑에 대한 로맨스, 그런 거.

(20대 후반 여성, 평양시 거주, 노동자/장사, 2017년 탈북, 2019. 8.22. 면접)

위 인용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영상매체에 등장하는 로맨스, 즉 ‘낭만적 사랑’의 세계가 북한의 젊은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세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의 여성이 말한 “사랑에 대한 로맨스”를 전하는 매체는 바로 외부사회로부터 유입된 영화, 드라마, 노래 등의 문화 콘텐츠들이다.

경제난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 중 하나는 비디오와 테이프, “알”이라 불리는 CD와 DVD, MP3를 통해 유입된 외부 세계의 영상물과 노래의 확산이다. 경제난 시기 생존을 위해 북한 주민들은 중국과의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한 물품을 들여왔는데, 한국, 중국, 미국의 영화, 드라마, 노래와 이를 재생하는 디지털기도 그것에 포함되었다. 이 노래와 영상물들은 각지로 퍼진 거래선을 타고 전국으로 유통되었고, 북한 여성들의 의식과 행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위의 여성이 갈망했던 “사랑에 대한 로맨스”를 보여주는 드라마 속의 세계는 북한 사회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이지만, 이제는 젊은 청년남녀의 일상에서 감지되고, 이야기되고, 다양한 실천을 통해 추구된다.

영상매체뿐만 아니라 남한 노래도 젊은 여성들의 정서와 연애감성에 영향을 미친

5) 오태호, “북한 단편소설에 나타난 연애 담론 연구,” 『국제어문』, 제58집 (2013), p. 564.

6) “타자에게 빨려들어가는 것은 열정적 사랑의 전형적 특성인데, 낭만적 사랑에서 이것은 추구라는 특정한 지향 안에 통합된다. 추구는 하나의 오딧세이, 그 안에서 자기정체성이 타자가 자기를 발견해 줌으로써 비로소 인정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오딧세이이다. 추구는 능동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현대 로맨스가 중세의 낭만적 이야기와 대조되는 점이다.” 앤소니 기든스 저, 배은경·황정미 옮김,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p. 87. “‘낭만적 사랑’은 두 사람간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협상으로서의 친밀성을 내포하는 관계이다. 이 관계에서는 성적 협상의 세계, 헌신과 친밀성이라는 새로운 용어들이 전면적으로 부상한다.” 위의 책, p. 27, p. 36.

다. 남한 노래 청취가 강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북한에서 남한 노래는 종종 중국 조선족 노래나 재일조총련 노래로 인식되기도 한다. 북한의 젊은 여성들은 북한 노래는 박력은 있지만 “나가자 백두, 뭐 그런 노래밖에 없는데” 비해, 남한 노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표현하는” “생활적인 노래”여서 호소력이 크다고 말한다. 함경남도 농촌지역에 거주했던 20대 초반의 여성은 “내 심정을 이해해주는 것 같은” 노래 가사를 음미하며, 연애 관계에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자각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남한 노래를 통해 남성의 고백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고, 북한과는 다른 세계와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외부세계로부터 흘러들어온 새로운 노래는 노래에 그치지 않고 연애 관계에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섹슈얼리티의 변화로, 다른 삶에 대한 호기심과 갈망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영화와 드라마는 북한 매체에서는 보기 드문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과 낭만적 연인관계를 더욱 직접적으로 눈앞에 보여준다. 여성들은 한국과 중국의 영상물들을 통해 ‘낭만적 사랑’의 원형을 발견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남녀의 연애이야기에 몰입하며, 남녀관계의 차이에 주목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한국 영상물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젊은 여성들은 통제를 피해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믿을만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눈다. 함경북도 농촌지역에 거주했던 20대 중반의 한 여성은 2016년에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단속에 걸렸지만 담배 세보루를 주고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당시 “천하무적 이평강” (KBS 16부작, 2009)을 보면서 ‘신세계’를 경험했다. 드라마 내용이 너무 “달달하고 호기심을 끌었고,” 사람들도 “다 번쩍번쩍하게 살아서” 그런 세계를 그리면서 중국으로 넘어왔다. 계층별,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한국 드라마를 통해 재현되는 ‘풍족한 물질문화’와 ‘낭만적 사랑’에 대한 동경은 적어도 북한의 젊은 여성들의 공통된 정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서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젠더수행을 만들어내는 바탕이 된다.

한국 영상물이 보여주는 사랑의 정서는 북한 젊은 여성들의 정서에 반영되고, 영상물이 보여주는 남녀 간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의 방식은 북한의 기성세대와는 다른 “깡 세대”의 행동양식을 만들어낸다. 북한의 젊은 여성들은 한국이나 중국의 영화와 드라마에 나타나는 남녀의 행동방식, 예를 들어 남성에게 대항하는 여성의 행동이나 여성을 배려하는 남성의 행동에 주목한다. 여성들은 영상물에 나타나는 남녀관계를 북한 현실 세계에서 여성을 “무시하고 짓밟는” 북한 남성들의 행동양식과 비교한다.

우리 시대 와서는 조금 깡어요. 왜인가 하면... 김정은이 올라와가지고 조금 보는 게 이제 중국을 통해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중국 드라마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녹화물이란 게 많이 들어와요, 비법으로. 그런 거 보는 애들, 지금 젊은 애들 다 그거 보거든요. 그런 거 볼 때, 그거 보면 조금 깡 거죠. 조금

나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부분 보면 남자들이 들었다 왔다 하죠, 여자를. 막 무시하고 짓밟고 그런 거 있어요. (30대 중반 여성, 함경북도 도시 거주, 노동자, 2017년 탈북, 2019. 8.13. 면접)

여성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드라마와 영화 속의 정서와 행동을 재현한다. 낭만적 사랑은 개인의 마음속에 자리잡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들의 일상에 스며들고 사회적으로 표현되며 또래들 속에서 공감을 얻는다. 이런 힘들에 의해 ‘낭만적 사랑’은 결혼이라는 제도와 결합된다. 조은주에 따르면, 낭만적 사랑과 연애결혼에 대한 지지는 부모와 가족, 친족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리는 근대적 개인의 성찰성에 대한 요청을 의미한다.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으로서 연애결혼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간관을 출발점으로 한다. 사랑과 결혼의 결합은 전통이나 관습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스스로의 행위를 설명하는 행위자, 스스로의 삶을 기획하고 예측하며 협상하고 책임지는 주체를 전제한다.⁷⁾

북한의 기성세대가 중매를 통해 상대방이 지닌 ‘조건’에 기반한 결혼을 했다면, 젊은 세대는 사랑을 결혼으로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면담에 참여했던 여성들은 중학교 동창이나 직장동료와 사귀거나, 병원 환자와 간호원 관계로 만나거나, 열차를 타고 가다가, 혹은 국가 동원 행사에서 만난 남성과 연애를 했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이들 중 여러 명은 연애했던 상대방과 결혼까지 생각하며 결혼의 조건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였고, 몇몇은 집안의 반대를 극복하고 결혼에 이르기도 했다. 북한에서 상당수의 젊은 여성들은 ‘낭만적 사랑’의 실천을 결혼이라는 주요한 생애전환점으로 연결지으며 자기 삶의 경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사랑의 성취로서의 결혼과 이후의 행복한 결혼생활은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개인의 선택의 영역⁸⁾이 되고 있다.

나. 연애와 친밀성의 장소

낭만적 사랑의 특징인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협상으로서의 친밀성’⁹⁾은 데이트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형성된다. 연인들의 데이트 양상은 지역과 연령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기성세대의 데이트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공원이나 가로등 아래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면, 최근 청년들의 데이트 문화는 보다 공개적이고 풍부해졌다.¹⁰⁾ 특히 평양과 같은 대도시에서 들어선 유희장, 봉사센터, 롤러스케이트장, 수영장, 영화관, 노래방 등의 놀이·문화 공간은 젊은 세대들의 데이트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평양 출신 20대 후반의 한 여성은 북한에서

7) 조은주, 『가족과 통치』 (서울: 창비, 2018), p. 229.

8) 위의 책, p. 229.

9) 앤소니 기든스 저, 배은경·황정미 옮김,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서울: 새물결, 1996, 2001), p. 27.

10) 조정아·최은영, 『평양과 계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 89.

대학에 다닐 때, 동원된 행사에 나갔다가 같은 조에서 행사 준비를 했던 대학생과 ‘커플’이 돼서 3년간 연애를 했다. 대학생들 간에 연애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그녀 주위에는 다른 대학교 남학생들과 연애하는 여대생들이 많았다. 이들은 커플들끼리 짝을 지어 평양의 문화·오락시설에 놀러가거나 자동차를 빌려 바닷가나 산으로 놀러가기도 했다.

평양과 같은 대도시와는 달리 농촌지역에서는 별달리 데이트를 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 함경북도 농촌지역에서 살았던 20대 중반의 한 여성은 직장 동료와 연애를 했다. 남자친구는 할머니와 둘이서 살았던 그녀의 집에 와서 빨감 마련, 지붕 기와 손질 등의 집안일을 도와주곤 했는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집을 오가며 같이 다니는 것이 데이트의 전부였다. 함경남도의 농촌지역에서 살았던 20대 초반의 한 여성은 자기 고향에서는 사귀는 남녀가 낮에 손을 잡고 다니면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고 여성이 남자와 서서 말만 해도 연애한다고 소문이 났다고 말한다. 그래서 연애하는 청춘남녀들은 동네를 벗어나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구석진 곳이나 다른 지역의 공원에 가서 데이트를 한다는 것이다.

탈북여성들의 증언에 의하면, 최근에는 중국 영화, 한국 드라마 같은 외부 문화의 영향으로 과감한 스킨십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북한에는 교제를 하는 남녀간에 성적인 친밀성을 형성할 수 있는 공공연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데이트와 스킨십에 관해 질문했을 때 많은 여성들이 북한에는 연애하는 남녀가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숙박시설 대신 이들은 당사자의 집에서 “부모님들이 없는 시간대를 노리거나” “비어있는 친구집을 이용” 한다. 한 여성은 북한 청춘남녀의 데이트장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한국]는 모텔이 있고 병원도 언제든지 내가 산부인과 가고 싶으면 가고, 조건이 그냥 다 주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북한]는 남자여자 자려고 해도 모텔이 없고. 그리고 내가 임신이 됐다고 해도 그걸 없앨 수 있는 그런 병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병원에 가면 그런 미혼 이런 사람들은 안 받아줘요. (중략) 그러다보니까 좀 뭐 생활이 풍요롭고 내가 진짜 둘이 같이 여행도 갈 수 있고 시내에 같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함부로 막 같이 자고 그런 거 못하거든요. 저기는 부모님들이랑 같이 살기 때문에 저녁에 부모님들이랑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그냥 똑같은 생활인데, 어떻게 남자친구랑 같이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연애를 해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손잡고 다니고 그냥 집에 와서 일해주고, 남자친구가. 내 또 개네 집 가 일해주고. 그게 끝이에요. (20대 중반 여성, 함경북도 농촌지역 거주, 노동자, 2016년 탈북, 2019. 5. 7. 면접)

교제하는 남녀 간의 스킨십과 혼전성관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양과 같은 대도시나 중국과 인접한 접경도시지역에서

는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다니는 연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함경북도 농촌지역에서 살았던 한 여성은 ‘시내’ 쪽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시골’에서는 손잡고 다니거나 팔짱 끼고 다니는 걸 “불건전하다”고 여겼다고 말한다. 농촌지역 출신의 또 다른 20대 여성은 연애하는 남녀가 낮에 손잡고 다니기도 어려웠다고, 간혹 남들 보는 데서 스킨십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상’으로 안 보고 “바람재”라고 불렀다고 말한다.

탈북여성들에 의하면, 북한에서도 혼전성관계가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경우, 남자친구가 여러 번 바뀌면 “더럽다”는 오명이 씌는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여성들 입장에서 혼전성관계를 하는 것은 상대방과 “미래를 같이 꿈꿀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이다.

여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남자 있으면 남자친구 같이 잘 수도 있잖아요. 같이 자고 그제 남자친구라고 생각하잖아요. 헤어졌다 해도 누구... 헤어졌구나. “남자친구 또 헤어졌구나.” 이렇게 하는데 북한에는 남자 친하면 그건 그냥 같이 사는 거라 보거든요. 친구라 안 하고 “새서방이다.” 그냥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신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붙어 다니다 떨어져... 헤어지잖아요. 헤어지면 흠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 여자가 남자를 한 세 번 정도 교체했죠, 신랑이다 이렇게 했는데 또 헤어지고, 또 신랑이다. 재는 남자를 너무 많이 했다고, 남자들 자체가 더럽다고. “너 몸이 더럽다”고. 벌써 세 명 정도 이렇게 교체한 정도면 더럽다는 인식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진짜로 만나면 그냥 사는 걸로 생각해요. (중략) [남자는] 여자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도 진짜 너무 많이 그러면 “재 완전 바람둥이다.” 이렇게 인식은 가지지만은 “남자가 그렇지 뭐.” 이렇게 말이 넘어가거든요. (20대 후반 여성, 양강도 도시지역 거주, 장사, 2017년 탈북, 2019. 5. 5. 면접)

3. 결혼 양상과 결혼제도의 이완

가. 결혼 양상과 배우자의 조건

‘낭만적 사랑’은 때로는 결혼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어지지 못하기도 한다. 함경북도 도시지역에 거주했던 20대 초반의 한 여성은 남자친구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애를 했지만, 아버지가 중앙부처 간부인 남자친구 집안과 “완전 평백성”인 자기 집안 간의 차이로 인해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접었다. 이와 달리, 양강도 도시지역에 거주했던 30대 중반의 한 여성은 아버지를 배웅하다가 기차 역전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6년간 연애를 했고,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다. 권력이 있는 집안과 혼사를 맺기를 원했던 남자친구 집안에서는 이 결혼을 반대하고 중매를 통

해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짐을 싸서 이 여성의 집에 들어와 동거를 시작했다. 이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후에야 시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져서 닷새만에 약혼식을 하고 닷새만에 결혼식을 했다. 그녀는 출산 전까지 직장에 다녔는데, 혼전동거와 임신에 대해서 주위에서 “뒷소리가 많았지만”, 결국은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었다고 한다.

이런 연애결혼 사례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친척이나 친지, 직장동료, 동네 이웃 등에 의한 중매결혼이 보다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중매결혼은 조건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집안끼리 다 아는 경우가 많고, “까치는 까치끼리, 제비는 제비끼리”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연애결혼과 중매결혼의 비율은 지역과 계층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같은 20대 중에도 거주지역과 계층에 따라 친구들 중 60-70%가 연애결혼을 한다고 말하는 여성들도 있고, 중매결혼이 연애결혼보다 조금 더 많다고 말하는 여성들도 있고, 대부분 중매결혼을 한다고 말하는 여성들도 있다.

열정과 자기발견의 인정이 중시되는 ‘낭만적 사랑’ 과 달리 중매에서는 상대방이 지닌 조건이 만남 성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여성의 돈과 생활력, 남성의 직업, 토대, 능력이 교환된다. 여성들이 보는 배우자의 조건은 돈, 배경, 발전가능성이다. 돈이 많거나 돈이 나올 수 있는 직업이 있어야 하는데, 외화벌이 이외에도 법관, 군관, 안전원, 보위부원 같은 “정복입은 사람들” 과 간부가 이에 해당한다. 운전수나 의사 같이 큰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도 여성들이 배우자 직업으로 선호한다. 배경으로는 집안의 토대와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본다.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군대를 다녀와서 당원이 될 수 있고, 대학 졸업자이거나 여성이 뒷바라지를 해주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한 것을 의미한다.

북한 남성들이 배우자로 선호하는 여성의 조건은 계층에 따라 다르다고 탈북여성들은 말한다. “간부들 계열” 은 좋은 대학 졸업생을 선호하지만, “평범한 사람들 계열” 은 장사를 잘 하는 게 똑똑하다고 보고, 돈을 벌 줄 모르면 “머저리로 여긴다.” 부모들은 딸들이 중등학교를 졸업하면 장사밑천을 들여서 장사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장사를 잘 한다고 소문이 나면 중매도 잘 들어온다. “갓출 것을 다 갓춘 남자” 들도 간부가 되거나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신의 “발전을 위해” 돈 있는 여성을 찾는다. 최근 평양에서는 돈이 많은 남성들 사이에서 외국어대학을 졸업하고 관광안내통역원을 하는 여성들의 인기가 높아졌는데, 이는 이 여성들이 “깨어 있고 험한 일도 안 하고 스타일도 괜찮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일반 계층의 남성들은 “건강하고 가정을 떠메고 갈 수 있는 여성” 을 선호한다고 한다.

나. 결혼제도의 이완

‘낭만적 사랑’ 의 등장과 함께 교환으로서의 결혼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기존 결혼 제도의 틀을 벗어나거나 이를 변형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모성담론과 재가족화를 강조하는 젠더 담론 속에서도 세포로서의 가족을 구성하고 결속시키는 결혼제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제도의 틀을 벗어나는 대표적인 행위는 결혼기피이다. 북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결혼한 적이 없는 여성 비율은 20~24세에서 80.9%, 25-29세에서 20.0%, 30-34세에서 2.8%이다.¹¹⁾ 이 수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25세에서 29세 사이에 결혼을 하고, 34세 이후에 미혼으로 남아있는 여성은 3% 미만으로 매우 소수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성들이 경제적 부담과 결혼 이후 여성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노동 부담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양강도 도시지역에 거주했던 30대 초반의 한 여성은 예전에는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부담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하며 닦치는 대로 살자”고 생각했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결혼을 늦추거나 기피하는 여성들이 생겨났다고 말한다. 20대 중반의 한 여성은 젊은 여성들의 결혼 기피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또래 보게 되면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려고 안 합니다. 그냥 사회 나가서 장사를 어떻게 제 손으로 벌여가지고, 뭐 시집갈 생각도 안하는 거 같습니다. 살기 힘드니까. 시집가서... 내 친구들도 다 시집가서 애 낳고... 처녀 때는 진짜 멋있게 하고 막 그렇던 게 시집가서 너무 살이 빠져가지고 그러는 거 보고 엄마들이 막 “야, 절대로 시집가서 너무 너무 힘들게 살 바에는 시집가지 말고 혼자서 살면서 그냥 장사나 해서 혼자 먹고 사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려고. 시집갈 생각도 좀 안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시집장가를 가자고 해도 뭐 갖춘 게 없고 하나, 뭐 어떻게 벌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시집장가를 못가는 거죠. 여자도 못가고 남자도 못가고. (20대 중반 여성, 함경북도 농촌지역 거주, 노동자/장사, 2018년 탈북, 2019. 5. 9. 면접)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25세~49세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5.0세로, 28.0세인 남성에 비해 세 살 낮다.¹²⁾ 탈북여성들의 증언에 의하면, 최근 여성들의 결혼 연령은 약간씩 높아지고 있다. 통계자료 상으로는 도시거주 여성의 초혼 연령은 25.1세, 농촌 거주 여성 24.7세로, 지역별 초혼 연령에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¹³⁾ 특히 대도시 고학력 여성들의 결혼 연령이 더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양에 거주했던 20대 후반의 한 여성에 의하면, 고학력 여성들의 초혼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대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이 대부분 당원이 되기 위해 군대를 갔다오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전에는 당원이 아니어도 간부가 될 수 있었지만, 2000년대에는

11) 중앙통계국, 『201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경제연구 및 건강조사』(평양: 중앙통계국, 2015), p.34.

12) 위의 책, p.34.

13) 위의 책, p.34.

지도원급 간부가 되려면 반드시 당원이 되어야 하고, 당원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군대에 다녀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농촌지역에 거주했던 또 다른 여성은 20대 중반까지는 “지금 현재가 좋으면 사는 것”이지만, 그 나이를 지나면 “세계관이 서서 먼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결혼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한다. 일반계층 여성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망설이는 주된 이유는 여성들이 가정의 경제를 담당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젠더구조와 관계가 있다.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남성은 공식직장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직장 적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여성들이 장사 등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전담하게 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여성이 결혼을 하고 시장활동에 뛰어들다는 것은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병행, 시장경제활동에 대한 각종 단속과 통제, 여맹과 인민반 등 조직생활의 삼중고가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망설이거나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혼을 할 경우에도, 일정 기간 혼전동거를 하거나 결혼식을 한 후에도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사는 커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과의 접경지역에서만뿐만 아니라 내륙지역의 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평안남도 도시지역에서 거주했던 20대 중반의 한 여성은 동거 후 아이를 낳고나서 결혼등록을 하는 사람이 40%는 된다고 말하고 있다. 10여년 전에만 해도 “약혼 전에는 남녀가 절대 같이 못 잔다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혼전동거를 하더라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별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 양강도 도시지역에 살았던 30대 중반의 한 여성은 긴 연애와 시댁의 반대로 인한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지만, 결혼등록은 결혼식 후에 바로 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혼등록을 한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집을 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서둘러 결혼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결혼등록을 미루고 혼전동거를 택하는 주된 이유는 결혼등록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배급이 원활히 이루어졌던 시기에는 가구주의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가족구성원들에게 배급을 공급했다. 따라서 여성이 결혼 후에 남편 직장에서 배급을 받으려면 결혼등록을 해야만 했다. 경제난 이전 북한 사회에서 배급제도는 남성 생계부양자를 중심으로 가족 내 위계질서를 구성하고, 성별화된 사회적 역할을 정당화하는 중심기제였다.¹⁴⁾ 그러나 경제난 이후 대부분의 직장에서 배급이 중지되면서 혼인에 대한 국가의 인정 효과가 사라졌다. 결혼등록 연기는 배급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가부장제가 통제능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결혼등록을 유보하는 것은 법적 등록으로 인한 혜택이 없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결혼등록을 미룰 경우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여성이 이혼을 원할 경우 여성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쉽지

14) 조영주, “북한의 ‘인민만들기’와 젠더정치: 배급과 ‘성분-당원’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9권 2호(2013), pp. 123~124.

않고, 절차도 복잡하다. 그런데 결혼등록을 하지 않으면 동거생활 기간에 배우자와 같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 복잡한 이혼 절차 없이 헤어질 수 있다.

그게 지금 유행이 된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신고를 법적신고 해가지고 결혼등록하면은... 북한은 이혼하기가 힘들잖아요. 여기처럼 둘이 동의만 하면 이혼하기가 험하면 결혼도 뭐 이런데. 이혼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실지로 말하면 살다가 생활에 부딪혀가지고 막 갈라지겠다는 게 좀 많아요, 북한도. 그러니까 이혼하기가 너무 힘들니까 이제는 그 결혼등록을 하기가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애를 넣고 한 2~3년 살아보고 다른 게 없으면 절차를 밟는 거예요. (중략) 그게 유행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는 그냥 그게 뭐... 한 5년 전부터 그런 거 같아요. (30대 초반 여성, 함경북도 도시지역 거주, 전업주부, 2018년 탈북, 2019. 7. 24. 면접)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등록을 미루는 최근의 관행들은 가족제도의 경직성을 우회하며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북한 여성들의 전략적 젠더 수행의 단면을 보여준다.

4. 성적 자기결정권과 몸의 규율

가. 성교육과 성 지식의 습득

자유 연애와 스킨십, 혼전동거 등 섹슈얼리티 측면에서 새로운 실천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북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성교육 관련 교육내용이 거의 없다. 한국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초급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 중 ‘기초기술’ 과목에서 여학생에 한해서 ‘여성위생상식’ 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지만,¹⁵⁾ 해당 교과서에는 관련 내용이 실려 있지 않다. 면접에 참여한 탈북여성들도 대부분 학교 재학 시절 월경, 임신과 출산, 성지식, 피임 등을 다루는 성교육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구술하였다. 20대의 응답자들도 한두명을 제외하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성교육은 교육과정에는 들어있지만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교사 재량에 따라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 산전산후휴가 등 법·제도적 모성보호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교육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 별도의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초경에 관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15) 남한의 중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초급중학교 교육강령에서는 “여성위생과 조선옷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응용할 줄 알도록 한다.”고 관련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 (평양: 교육위원회, 2013), p. 197.

대부분 당황과 두려움의 서사로 구성된다. 평양에서 살았던 20대 후반의 여성 사례 22는 자신의 첫 월경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월경에 대해서] 저는 안 배웠던 거 같은데요. 그거 할 때 저 울었었어요, 죽는 줄 알고. 그래서 엄마가 괜찮다고. 엄마가 그렇게 말했을 때는 믿지 않았다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어, 우리도 다 한다.”고 그래서야 내가 나 병이 안 걸렸구나. 엄마가 “아니야, 그거 네가 이제 어른 돼서 하는 거야.”라고 그래도 계속 우니까, 친구들한테 가서 들어봤는데 “우리 몇 달 전부터 했다.” 이렇게 말해서 “그런 거였어?” (20대 후반 여성, 평양시 거주, 노동자/장사, 2017년 탈북, 2019. 8.22. 면접)

학교에서 성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북한 여성들은 성관계, 피임, 낙태, 임신, 출산 관련 지식을 어머니, 여자친구, 아는 언니, 동네 아주머니 등 주위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습득한다. 어머니는 성교육을 하기보다는 “결혼하기 전까지 남자와 같이 자면 안된다.”는 식의 딸의 몸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 미혼여성들은 때로 집에 놀러오는 어머니의 친구들이나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나누는 성에 관한 경험담을 듣고 남녀가 “이렇게 성관계를 가진다고 상상해 보기도” 한다.

가장 확실한 정보원은 연애할 나이의 ‘언니들’이다. 20대 여성들은 북한에는 성교육도 없고 ‘야동’도 없기 때문에 “그냥 손답고 다니면 임신이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지한 사람이 많지만,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언니들 무리에 들어가면” 성행위나 피임, 낙태 등에 관해 알게 된다고 말한다. 이밖에도 성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유일하게 적법한 성지식의 원천이 되는 것은 여성의학책이다.

나. 피임과 낙태

기혼여성의 피임과 낙태를 국가권력의 인구통치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면, 미혼여성의 피임과 낙태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문제이다. 북한에서는 1980년대 초반에 피임시술 방법으로 자궁내장치가 보급되었고, 인구증가 문제로 인해 1983년에는 여성들의 낙태수술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¹⁶⁾. 그러나 이는 기혼여성에게 해당하는 것일 뿐, 미혼여성의 피임이나 낙태 문제는 공식담론 상에서는 거론되지 않는다. 대학생의 경우,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면 퇴학조치된다는 증언으로 미루어보아, 혼전임신은 사회주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고 때로는 이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도 받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젊은 세대가 이성관계에 보다 개방적이 되면서 혼전성관계와 이에

16) 권금상, “북한 여성의 섹슈얼리티 연구: 국가권력과 여성주체 간의 동학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4), p. 99.

따르는 피임, 낙태 문제는 북한 여성들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30대 후반의 한 여성은 이와 관련된 최근의 세대 변화를 지켜보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전에는 시집을 가기 전에는 피임을 안 했어요. 그렇게 남자하고 그런 관계를 생각한다는 자체도 좀 그랬고 그런 관계를 별로... 그리고 피임을 해서 내가 이걸 방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벌써 그 사람하고 그냥 살면 좋은데 만약에 안 살게 되면, 그 몸에 피임한 걸 알게 되면 다시 시집간 상태에서 그걸 알게 되면 안 좋지 않아요. (중략) 지금은 애들이 많이 깨어 있어 가지고 연애하는 관계 속에서도 그런 성관계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성관계를 했다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그게 소문이 안 좋으니까. 누구도 모르게 가만히 그런 네, 집들에 개인집들에 찾아가가지고 아예 가만히 없애는 거죠. (30대 후반 여성, 양강도 농촌지역 거주, 장사, 2016년 탈북, 2019. 7.21. 면접)

위의 구술은 현재 30대 후반인 여성이 결혼할 무렵에서 십여 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크게 달라진 미혼여성들의 성적 실천의 단면을 말하고 있다. 십여년 전과 달리 지금은 혼전성관계가 증가했지만, 혼전성관계에서 남성들이 피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피임은 여성의 책임이 된다. 학교에서 성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피임방법은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자기들끼리 피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남자 붙으면 임신하는 거 알고, 임신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하니까 그럼 피임해야 되겠구나. 그건 누가 대주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알거든요. 저는 언니들한테서도 많이 들은 거 같아요. 저보다 많이 이상 언니들 이야기하는 과정에 뭐 엄청 아프다고 그러니까 애를 없애는 거. 북한에서 소파라 하거든요, 긁어내는 거. 배 자기 아프다고. 그거 하는 게 엄청 아프다고. 너네는 절대로 그러지 말고 먼저 피임부터 하라고. 애 생기면 없애는 게 기차게 아프다고. 그렇게 아프다고. 미리미리 예방해야 된다고. 자기 몸 자기 절로 돌봐야 된다고. 언니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었거든요. 아는 언니, 동네언니 뭐 이런. 네, 언니들. 같이 좀 가깝게 친한 언니들. 누구누구 어쨌는데 좀 같이 가달래서 자기 같이 가봤는데, 뭐 그렇게 아파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남자만 생기면 피임부터 해야 된다. (20대 후반 여성, 양강도 도시지역 거주, 장사, 2017년 탈북, 2019. 5.5. 면접)

북한에서 여성들이 취할 수 있는 피임 방법은 피임약과 ‘고리’라고 불리는 자궁내장치이다. 콘돔과 같은 남성용 피임기구에 대해 알고 있거나 그것을 사용하는 여성은 별로 없다. 피임약은 동네의 ‘약집’에서 살 수 있지만, 복용이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 소수의 “잘사는 사람들이나 소문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대부분은 ‘고리’를 낀다. 요즘은 “농촌에, 산골안에 있는 애들 내놓고는” 중학생 때도 연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고리를 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양강도 도시지역에 살았던 한 20대 후반의 여성은 결혼 전 연애할 때 자궁내 피임장치를 했다.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서 동네언니들에게서 들었던 낙태수술 이야기가 생각나 무서웠던 그녀는 여자친구하고 같이 개인의를 찾아가서 피임시술을 했다. 병원에 갈 수도 있지만 처녀가 피임장치를 하러 간다는 것이 ‘창피했다.’

북한 사회에서 미혼여성이 몸 안에 장치를 시술하는 형태의 피임을 하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어서, 피임을 못한 여성이 연애과정 중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기도 한다. “북한도 연애한 사람과 굳이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원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미혼여성들은 낙태를 선택한다. 낙태는 대부분 병원이 아닌 개인의를 찾아가거나 집으로 불러서 낙태수술을 한다. 개인적으로 낙태를 해주는 이들은 피임시술과 마찬가지로 전·현직 의료인들이다. 미혼여성들은 오히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 것보다 개인집에서 하는 것은 소문을 피할 수 있고, “더 실속있고 깨끗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선호한다.

북한의 젊은 여성들은 또래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며 공식담론에서 수용되지 않는 다양한 성적 실천들을 해나간다. 허가받은 병원이 아닌 비공식 의료체계를 통한 피임과 낙태는 성관계에 따르는 책임이 온전히 여성의 몫으로 부과되는 북한 사회에서 최소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키려는 행동이다. 그러나 미혼여성의 피임시술과 낙태수술은 주로 공적인 보건의료체계 내에서가 아니라 비공식 의료체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생문제나 의료사고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계속 [피임]약 먹기도 귀찮고, 못 사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언제 그런 약까지 살 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애기 생기는 것도 1년에 한 번 생기든가 그렇잖아요. 그냥 1년에 한 번 없애는 게 낫지, 힘들어도. (20대 중반 여성, 평안남도 도시지역 거주, 장사, 2017년 탈북, 2019. 5.21. 면접)

위의 구술은 피임약을 계속 먹는 것보다 낙태를 계속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모성보호에 대해 무지한 인식을 보여준다. 북한 여성들은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공식담론과 사회적 허용 영역을 뛰어넘는 성적 실천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실천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다. 용모 단속과 ‘스타일’의 추구

북한에서 여성의 외모와 옷차림은 개인의 자기표현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적 관리와 규율의 대상이었으며, 자신의 몸과 외모를 치장하려는 여성들의 욕구는 ‘퇴폐주의 외래문화’의 산물로 여겨져왔다. 그런데 김정은 집권 이후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통제가 다소 완화되고, 화장품과 의류 등 경공업 부문이 강화되면서 여성들의 외모와 관련된 소비품도 늘어났다. 탈북여성들에게 김정은 집권 이후 여성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가장 빈도가 높은 대답은 외모에 대한 통제가 다소 완화되었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전에는 금지되어 있었던 귀걸이와 목걸이 착용을 기혼여성들에게 허용하는 조치가 취해져서 “농촌에서 짐을 지고 밭에 가는 여자들도” 다 귀걸이를 착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귀걸이 길이에 대한 단속이 있어, 귀에 붙는 짧은 귀걸이만 허용하고 길게 늘어지는 귀걸이는 착용이 금지되었다. 여성들은 긴 귀걸이를 하고 다니다가 단속하는 규찰대가 보이면 얼른 귀걸이를 빼서 주머니에 넣는 방식으로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돌파해나갔다.

최근 북한 여성들의 옷차림에 영향을 준 사건은 퍼스트레이디 리설주의 등장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리설주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행사에 동반 참석하고, 공식 선전매체를 통해 모란봉악단, 삼지연관현악단, 왕재산예술단 등 예술단원들의 파격적인 옷차림이 일반 여성들에게 노출되었다. 이는 선전매체를 통해서 조선옷이나 점잖은 무채색의 정장옷만을 보아왔던 북한 여성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TV를 통해 리설주의 옷차림을 본 40대 초반의 한 여성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산 나팔바지와 털 달린 가죽점퍼를 입고 길을 나섰다가 옷차림 단속에 걸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선여성다운 데가 어디 하나 있냐?”는 힐난을 들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단속에 걸려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다니겠다.”고 생각했다. 이 여성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짧은 스커트 차림의 리설주의 화려한 옷차림을 보면서 ‘같은 여자인데 우린 왜 못 입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복장단속에 관계없이, 또는 통제를 피해 “그냥 다 그렇게 입고 다녔다.”

여성의 외모에 대한 국가 통제의 틈은 개성의 표현으로서 자신의 몸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이 이전에도 ‘추세’라고 불리는, 주민들의 차림새와 소비풍조에서 일정한 생활양식이 대중적 인기를 끄는 현상이 존재했다.¹⁷⁾ 이전 시기의 ‘추세’ 현상이 집단적 유행을 따르는 행위에 방점이 두어졌다면, 최근 여성들의 외모와 옷차림에 대한 관심은 보다 개별화된 자기표현의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 비슷하게 입는” 대신, “특이한 옷”을 입고, “내 몸을 가꿈”으로써 “나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제멋대로 사는” 여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한 영상물 확산도 옷차림과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 여성들의

17) 김석향, “1990년 이후 북한의 소비생활에 나타나는 추세 현상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1호 (2012), p. 193.

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여성들은 영상매체 속에서 보고 듣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옷차림이다. 평양에서 여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에 다녔던 한 여성은 한국 드라마가 유행했던 2010년대 초중반에 한국 드라마 주인공들이 입었던 옷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옷을 입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말한다.

여자니까 아무래도 뭐 패션, 이런 데 되게 눈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드라마에서] 애들이랑 나오면, 뭐 예를 들면 “천국의 계단 봤어?” 그러면서 뭐 그냥, 그 다음날 여자들이 하는 말은 그냥, 뭐 수다 떨고. 대학 때도 같았어요. [드라마에서] 누구 옷 예쁘고, 개 입은 옷 예쁘고. 누가 나오면, 일주일 후면은 그대로 카피해서 옷이 딱 판매가 되거든요. (20대 후반 여성, 평양시 거주, 대학생, 2015년 탈북, 2019. 4.17. 면접)

이 여성과 비슷한 또래인 다른 평양시 출신 여성은 중등학교 재학시절 한국 드라마를 보고 “기를 쓰고 따라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머리모양을 이상하게” 해서 염색하고,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을 감추고 다녔다고 말한다. 양강도 도시 지역에 살았던 한 여성은 짧은 치마와 청바지, 종대바지, 뗏다바지¹⁸⁾ 등을 입다가 단속에 걸리면 비판서를 쓰고 “난리가 나지만”, 유행을 따라가려는 젊은 여성들의 노력은 “아무도 못 막는다”고 말한다. 같은 지역에 살았던 20대 중반의 한 여성은 남한 영화를 많이 봐서 자기도 모르게 말투가 달라져서 친구들에게 “한국말 한다”고 지적을 많이 당했고, 단속에 걸릴까봐 늘 조심스러웠다는 얘기를 전한다. 북한 여성들은 한국 드라마 속 한국 여성의 외모를 재현하고, 한국 중산층 가정의 인테리어를 적용해서 집을 꾸미고, 자신의 연인에게 상냥한 서울 말투로 얘기를 걸어 보는¹⁹⁾ 방식으로 영상매체 속의 가상현실을 북한 사회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5. 나가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 세대’ 여성들의 연애 경험은 기성세대들의 연애 및 결혼 관행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거주지 부근에서 오다가다 만난 남성들과 연애를 하고,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만남을 이어가기도 한다. 또한, 폐쇄적인 성문화 속에서 또래와 소통하며 사회적 허용영역을 뛰어넘는 성적 실천을 하고, 옷차림과 소비활동에서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추구한다. 일부 젊은 여성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 속에서 결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결혼을 통해 남성의 반려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것보다는 독립적

18) 종대바지는 몸에 달라붙는 바지를 말하며, 뗏다바지는 종아리 부분은 달라붙고 복숭아뼈가 드러나도록 짙막한 바지를 말한다.

19) 조정아·최은영, 『평양과 계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p. 189.

인 삶을 추구하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면접에 참여한 20대 여성들은 대부분 북한 사회에서 결혼한 경험 없이 한국으로 왔다. 탈북과 남한행은 기성세대 여성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들이 선택한 대안이기도 하다.

이제 북한의 새 세대 여성들은 국가의 젠더담론에서 강조하는 헌신과 봉사의 심성을 갖춘, 수령/당과 일체가 된 대가정의 구성원이기보다는 경쟁과 이윤, 물질적 행복과 욕망, 개성, 미래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 실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경제난 이후 출산을 저하로 형제가 많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고, 어린 시절부터 외부 ‘드라마’와 ‘노래들’을 통해 기성세대와 다른 문화적 경험을 하였으며, 달라진 교육환경 속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다루며 성장하였다.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새 세대’ 여성들이 공유하는 이러한 성장환경이 당과 수령으로부터, 또한 남성의 그들로부터 독립적인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90년대 생’ 북한 여성들이 보여주는 실천은 위로부터의 젠더정치와 젠더체계의 통제 하에 있지만, 한편으로 그것에 도전하거나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여성들의 크고 작은 실천과 이것이 일으키는 사회적 균열에 주목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교육위원회.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 평양: 교육위원회, 2013.
- 권금상. “북한 여성의 섹슈얼리티 연구: 국가권력과 여성주체 간의 동학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석향. “1990년 이후 북한의 소비생활에 나타나는 추세 현상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1호, 2012.
- 앤소니 기든스 저. 황정미·배은경 역.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서울: 새물결, 1996.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페미니즘의 개념들』. 파주: 동녘, 2015.
- 오태호. “북한 단편소설에 나타난 연애 담론 연구,” 『국제어문』 제58집, 2013.
- 조영주. “북한의 ‘인민만들기’와 젠더정치: 배급과 ‘성분-당원’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9권 2호, 2013.
- 조은주. 『가족과 통치』. 서울: 창비, 2018.
- 조정아·조영주·조은희·최은영·홍민.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조정아·최은영.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중앙통계국. 『201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평양: 중앙통계국, 2015.